

# 군산시, 지역경제 살리기 모든 역량 집중

### 시 경제향만국,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브리핑... 군산경제 회생 위한 의지 밝혀

군산시가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은 한국자본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4일 시 경제향만국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산경제 회생을 위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김형철 경제향만국장은 "지난 2월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이후 군산시는 대책상황실 운영 및 대응 TF팀을 구성, 범도민 서명운동,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서울 광화문 범도민 총궐기대회, 국회 정부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해 군산시의 처참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인 지원이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GM 군산공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역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마련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상황을 알리고 지원책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군산시는 정부의 한국GM과의 실사를 통한 협상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철회와 정상가동"을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6일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했으며

같은 달 23일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전북도를 통해 신청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 특별지원, 실업자의 실업급여 특별연장, 종합취업 지원 대책 수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경우 협력업체 긴급일자리,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개선, 관광 및 여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관유치 및 제도 개선 등의 지원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위기로 인해 군산시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근로자와 가족, 협력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유지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진행했으며 4일초 지정 심의를 거쳐 이달 중에 지정 고시 및 지원사업 시행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전북도 및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한국GM 고용위기 전담팀을 배치해 종합초기상담, 창업 및 전직, 직업훈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긴급복지지원,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중소기업 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 곽병선 군산대 8대 총장 취임 "SMART한 대학 만들겠다"

군산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을 역임한 곽병선 교수가 제8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4일 군산대에 따르면 도내 각급 기관 단체장 대학 후원기관 및 관련 기관 전직 총장, 교직원, 학생 등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곽병선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군산대학교는 어느 대학 못지않게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숨겨진 열정과 역량이 크다"며 "진정한 혁신과 성장은 사람을 통해 시작되고 사람을 통해 완성되는 만큼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취임소감을 전했다.

이어 곽 총장은 "사람으로 세상을 잇는 SMART한 군산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한 교육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융복합 전공, 공유전공, 연계전공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소통을 통해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병선 총장은 군산대 교무처장, 법학연구소 소장, 교수협의회 의장 등으로 활동했고, 한국법학회 회장, 전국국립대학 교수회 공동의장, 법무부 인권감사, 군산시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 민·관 협약

### 침출수 전처리 시설 설치 · 감독공무원 · 주민감시원 배치

익산시 낭산면 소재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내 불법 반입된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주민대책위는 민·관 협약을 체결했다.

4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김승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정식 환경부담당사무원, 차재룡 낭산주민대책위 위원장, 낭산면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에 반입된 불법 폐

기물과 오염된 토사 전량제거원칙, 사안의 긴급성과 주민피해를 감안하여 침출수 전처리 시설 설치, 불법 반입된 폐기물과 침출수의 적법처리를 감시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 · 주민감시원 배치 등으로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됐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 6월 24일 환경부 발표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현장 긴급조치,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상수도 시설 긴급지원, 주민건강검사, 폐석산 복구지 실

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지난 2017년 11월 13일부터 2018년 4월 11일까지 해동환경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낭산주민대책위와 처리방안을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며 오염원인자가 조차명령 기한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민·관 협약으로 불법 반입된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 익산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 신청 접수

익산시는 가축사육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을 오는 2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신청대상은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의지를 가진 2016년 이전에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로 해당 읍·면·동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익산시는 2017년 13개 농장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4개 농가, 2025년까지 110개 농가를 지정하여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축산인과 주민들이 상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익산=정왕원기자

##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사무소 개소

###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제공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시의 굿네이버스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신고에 적극 대응하고 부족한 피해아동 보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군산지역의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학대 피해아동의 발견·보호, 치료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했으나 관할이 넓어 원활한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사

과 발달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아동관리를 지키기 위한 굿네이버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아동친화 선도 도시로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군산을 만드는데 모든 행정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사무소는 6명의 인력이 배치돼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캠페인 활동 등을 추진하며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기자

## 익산 시내버스, 행선알림 LED 전광판 설치 운영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20대에 LED 행선알림 전광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LED 전광판은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 정류장에서 목적지로 가는 버스를 알아보기 쉽도록 시내버스 외부 전면에 시인성이 높은 LED로 노선번호와 주요 행선지를 알려주는 전광판으로, 실내는 음성 안내와 연동되어 정류장명을 표시하는 전광판으로 제작 설치했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시는 4일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관리와 식중독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신속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식중독 예방 종합대응협의체를 구성, 회의를 개최했다.

## 군산시, 식중독 발생 제로화 발 벗고 나서

### 종합대응협의체 회의 개최... 식중독 예방대책 논의

4일 시에 따르면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관리와 식중독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신속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식중독 예방 종합대응협의체를 구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 식중독 발생 동향 및 2018년 전망에 대한 보고에 이어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식중독 예방 민관 합동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등 2018년 식중독 예방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장경익 복지관장은 "이번 식중독 예방종합대응협의체 구축·운영을 통해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중독예방 종합대응협의체는 복지관장국장을 중심으로 시 관계부서, 군산교육지원청, 한국휴게음식업 군산시지부, 대한영양사회 군산지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유기적인 업무협계를 유지함으로써 식중독 발생 시 긴밀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

풍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